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총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5: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인: 대원예수교 총현교회 서훈기 서훈기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SEN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진

2000년에 파송될 단기선교사(단기선교인)모집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아름다운 팀사역 기대

교회는 2000년에 파송하게 될 단기선교사(혹은 단기선교인)를 미리 모집하여 훈련시키기로, 이들이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우리 교회 선교지역에 파송되어 사역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상은 총회선교부와 협력하여 선교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신도선교사훈련원(LMTC)을 수료했거나 올 12월까지 수료하게 될 훈련생들(평신도선교사 자격 취득자) 중 선발된 자들이며, 선발하여 파송하게 될 인원은 10명이다. LMTC 제1, 2기 수료생들은 물론이고, 9월부터 시작될 제3기 파송을 시작하여 마치게 될 훈련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교회는 이들을 파송하면서 왕복항공비 및 선교비의 60%를 지원하고, 이들이 선교지에서 머무는 동안 꾸준한 기도로 후원할 예정이다.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는 단기선교단의 사역을 통해 뿌려진 씨앗을 보듬고 뿌리내려 열매맺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을 거주하면서 현지인들을 섬기는 단기선교사(선교인)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들은 현지로 파송하면 이미 본 교회 의식부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간 현지인이나 그들의 친지들과 연관되어 사역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선교단과 외선부 출신의 현지인과 그 가족, 그리고 일정기간(1-3년) 거주하는 단기선교사(선교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팀사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선교위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일에 지원하는 성도들이 많기를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전도 이번 주엔 강원도, 제주도로 3, 10, 14교구와 대학부

이번 주에는 3교구에서 강원도 영월(마차중앙교회)로, 10교구에서 강원도 인제(부령교회)로, 14교구에서 경기도 연천(새마을교회)으로, 대학부에서 제주도(도산교회)로 농어촌전도사역을 나간다. 3교구는 21일부터 23일까지, 10교구는 19일부터 21일까지, 14교구는 22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대학부는 19일부터 24일까지 각 각 사역을 진행한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는 다만 믿고 전할 뿐이다. 이들의 입으로 전한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이 언제 저 먼 나라 오지에서 선교사로, 자기 지역의 목회자로 사역하게 될지 모른다. 봉사과 섬김을 통한 이들의 복음전도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있는 힘을 다해 기도로 지원해야 하겠다. 한편, 7월 25일 주간에 있는 최소년 18개반 이상이 농어촌 낙도 오지로 출발할 예정이다.

청년부에서 제안하는 농어촌전도대원 대강령

1. 나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십자가의 정병이다.
2. 나는 대장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3. 나는 기도하는 기도의 정병이다.
4. 내가 도약한 성, 산골이 순교할 장소로 고향이다.
5.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이다.
6. 나는 무조건 웃는다.
7. 나는 주는 대로 먹는다.
8. 나는 먼저 섬기는 종이다.
9. 나는 감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늙는 곳이면 양이다.
10. 나의 최대의 무기는 성령의 감, 말씀이다.

지회자와 반주자를 위한

제3회 전국찬양대지도자강습회 7월 31일에 접수 마감

강습기간: 1999년 8월 11일(수)-14일(토)
강 소: 총현교회
강 사: 총현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음악지도자, 목회자 등 총 26명
참가지역: 보다 영적이며 훈련된 모습으로 찬양하기 위한 전국 교회의 지회자, 반주자(본 교회 성도들도 참가 가능)
참가인원: 신학소 200명(지회 160명, 오르간 반주 50명, 피아노 반주 50명)
참가신청: 소정의 참가신청서, 참가비(4만원: 3박 4일간의 교육과 교재, 숙식제공 포함)
참가접수: 7월 31일(토) 오후 5시까지
참고사항: 수료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 수여
문의·신청: 총현교회 찬양위원회
(02-552-8200 교한 259, 260)

각 훈련된 사역 위해 미리 모집하는 겨울 단기선교단 8개국에 80명 파송할 예정

교회는 단기선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훈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겨울 단기선교단을 미리 모집하여 훈련키로 하였다. 사역지는 수단, 수단,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 총 8개국이며 파송할 인원은 나라별로 10명씩 총 80명이다. 파송은 1999년 11월 말부터 2000년 3월에 걸쳐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며, 파송자들은 9월 중 선발 완료하여 곧바로 훈련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교위원회(구내전화 356)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소년원 여름성경학교 자원봉사교사로 지원에 주세요

기 간: 1999년 8월 9-13일
장 소: 춘천소년원 생활관
섬김 대상: 200여명의 수강생들
사역 내용: 분반성경공부 및 개인상담과 교제
지원봉사자 자격: 옥에 갇혀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성도들이면 누구나
준비기도회: 7월 18일, 8월 1일 주일 찬양예배 후 교정전도회 사무실

학원전도회 수련회 7월 28일

우리들의 선교지인 학원과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자로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진행되는 학원전도회 수련회가 7월 28일 수요일 예배 후에 메디나홀에서 있습니다. 학원전도회원 및 관계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문의: 423-0189 / 김단홍 장로).

금주에 진행되는 계절학교들

영·유아·유치부, 중등1-3부, 뽕엘찬양대

성도들의 격려와 기도의 후원에 힘입어서 여름 계절학교들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 지난 주에는 11개 부서에서 계절학교를 진행하였고, 금주에는 7개 부서에서 계절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된다.

영·유아·유치부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일제히 시작되며, 세 부서 모두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을 닮자'를 주제로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한다. 강사는 각 부서 지도교역자이다. 그리고 19일에서 21일까지 중등1부(강사: 김필수 목사)와 4명, 주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믿음)는 기도원에서, 중등2부(강사: 김인식 목사)와 2명, 주제: 지금이 작은 자 하나님에게는 섬김의 길 등 장면에 사설 4곳과 교회에서 각각 수련회를 진행한다. 중등3부(강사: 김동식 목사, 권순환 목사, 주제: 십자가를 체휼하라)는 21일부터 23일까지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연다. 또한 뽕엘찬양대 여름수련회(강사: 김동하 목사, 주제: 여호와와 나의 목자)는 19일에서 22일까지 강원도 통천에서 열린다. 학부 및 성도들의 계속적인 기도의 후원을 기대한다.

충남남성중창단 제3회 연주회

일 시: 1999년 7월 24일(토) 오후 7시
장 소: 총현교회 나사렛홀
연주곡: 알렐루야 찬양 찬양 13곡
참 조: 뽕엘여중창단

전도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전도위원회는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각 지회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아래의 사항에 따라 감사를 받으신다.
기 간: 1999년 7월 18일-8월 15일
시 간: 매주일 오전 11시-오후 4시
장 소: 신산로4층 전도위원회실
준비서류: 의사결정표, 금전출납부, 원장, 예금통장, 영수증



김창인 목사

하나님의 설계 (이사야 44:24-28)

“여호와께서 아굽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복롭게 하실 것임이로다”

1. 하나님의 설계의 성격

(1) 하나님의 설계는 세밀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너무나 심오하여 과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여도 이루 형언을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송이와 열매 하나를 놓고 색소, 섬유질, 수분 등 성분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성분대로 다시 배합하여 원상의 열매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였으나 돈 몇 억을 들여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세밀하여 가히 흠새를 낼 수가 없습니다.

(2) 하나님의 설계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착오가 있어도 도중에 수정하거나 고칠 필요가 없도록 완전합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5천, 백만, 천 만이 가도 더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구라는 큰 행성의 속도는 십 년, 백 년을 날아도 더 빨라지는 법도 없고 느려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의 모든 설계는 틀림이 없고 완전합니다.

(3) 하나님의 설계는 견고합니다

견고하다는 말은 안정하고 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유성이 지구를 향하여 날아 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구와 충돌하면 끝장이 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전에는 지구에 유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그렇게 영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만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는 것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 하시기 아니고 바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주인이 복을 받도록 해도 복을 받듯이 성도가 복을 받으면 불신자에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복이 어떤 생도들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설계를 믿는 자는 기쁘고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하심에 성도에 복된 것임을 알고 믿는 자는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의와 더불어 싸움지침 죄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2. 악한 자와 마귀의 흥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설계

“거짓말 하는 자의 정조를 폐하여 접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를 몰려쳐 그 지식을 이리석게 하며”(25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은 무지하여 어리석은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욕심의 때가 묻은 계획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로 흥계를 꾸밈니다. 불신자의 계획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 무지하고 불완전하고 간악합니다. 어리석은 정장이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마귀의 계획을 때가 이르면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악마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평안한 때에는 죄를 범하지 않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악마의 유혹을 거절하고 조심하여 바로 살면 다음에는 악마가 까닭없이 조롱합니다. “홍, 아무개도 그러는데 네 혼자서 성인처럼 천당에 갈 줄 아니냐? 성도가 조롱하는 말을 듣고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그 다음에는 핍박을 시작합니다. 때때로 그 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한 때에 악마가 유혹하는 것을 거절하고 고생을 각오합니다. 억울하게 조롱을 받아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계획은 무너뜨리시고 의를 행하면서 조롱하는 성도에게 상주실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알고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 종들을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설계

“내 종의 말을 율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26절)

(1) 하나님의 종이 한 일은 권위있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의견이나 지식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기가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미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중심에서 하는 말미로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생명을 사함하는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지옥에서 건질까,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중심과 의에서 놓

아 줄까?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말미로 이루어집니다. 넷째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종의 배후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은 이루어집니다.

간판은 하나님의 종인데 마음으로 마귀와 타협하고 행동은 마귀의 앞잡이가 된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하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이 있고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므로 말씀의 하나님께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의 종에게는 심판으로 이루어지고 바로 살기 원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하여 말을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간판을 가진 자가 세상 권력을 잡은 자의 설계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는 바위에 날리는 거처럼 한 톨의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야 그 말에 권위가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2)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하여 발표하신 설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① 그리스 왕을 보내는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 나 의 목자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28절)

이사가야 그리스 왕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170년이 지난 후 성취되었습니다.

② 예루살렘 성 주위의 성읍들이 중건되리라는 예언입니다.

“...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26절)

그리스 왕이 유다 민족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날에 유다의 원수는 망하고 선민은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서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③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 민족의 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27절)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은 유브라데스강이 서 땅을 둘러싸 흐르는 전례의 소강이 마르므로 그래서 비행기가 없는 옛날에 바벨론 성을 쳐 들어갈 군대는 지구가 없습니다. 또한 바벨론 성 안에

는 3년을 먹고도 남은 곡식이 비축되어 있어서 굶어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 주위를 돌아 흐르는 유브라데스강이 말라서 발에 신을 신고 건너 가리랴는 누가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천 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밤을 지새우며 술을 먹고 노는 중에 그의 신하들 중에 “우리 왕은 가장 악하여 백성의 피만 마시는 흠렁입니다. 그의 참모들도 전부 도적놈들이니 메대 바사와 내통하자.” 이리하여 그날 밤에 바벨론 성문을 열고 다리를 내려 놓고 메대 바사 군인을 성 안으로 끌어 들였습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은 하나님이 계획을 발표하신 대로 그날 밤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④ 유다 민족이 귀향하여 성전을 중건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조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28절)

그리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선포하였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라고 명령하면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주라고 지시하였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4. 결론

인간의 설계와 계획은 다 무너집니다. 악한 자의 계획은 자손까지 멸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악독한 계획을 꾸미는 자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밀하고 완전하고 튼튼하고의 심할 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만, 욕심, 고집을 버리고 솔대없이 낙심하는 생활도 잠시 치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충성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경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충원회교의 모든 일꾼들이여, 하나님의 설계인 성경 말씀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시국을 따라 가지 말고 자기의 욕심도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하여 일하고 생명을 사랑할 마음으로 일합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일꾼은 반드시 성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생애대로 인생 설계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설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김 성 폭 목사

신앙의 관점 (빌립보서 3:7-10)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진정한 이익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시장 용어를 사용함으로 빌립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익이 된다'는 말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손해를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돌아보면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무언가를 얻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꿰뚫어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이 되었던 것(개역 성경에는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7절),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할례와 회교를 꾀한 것과 종교 생활 등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일제 앞에서 그의 인생은 금긴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에 따라 그는 이전의 모든 것들이 경건한 삶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에 대한 관점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익

우리는 표면적인 이익에 속기 쉽습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것,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인간의 내면과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며 전적으로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이익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따라서 그 마음에는 성경에서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적 통찰력과 생각, 인격과 훈련된 생활, 정성, 정열, 종교적인 훈련 등을 구원을 위한 공로로 내세웁니다. 이러한 관점은 바울과 종교인, 지식인과 사회철자에 잘 적용하는 사람들을 존경할 자로 만듭니다. 새 자를 굴리고 많은 천구들을 사귀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사교 모임에 나가는 일 등을 진정한 ‘이익’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발견

반면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과거에 범한 실수까지의 죄악을 보게 합니다. 바울은 회개 우리를 속여 어떻게 황폐하게 만드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이익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밝힙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로, 그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확신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헛소리였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인일 뿐 아니라, 가문이나 어떠한 도덕적인 행위로도 이 궁극적인 죄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이익의 보장이 되십니다. 그가 계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시지 않으면 생명의 삶에서 우리의 이름을 잃게 됩니다.

절대절망의 자기 부인

마치 항해자가 폭풍을 구하기 위해 배의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 버리듯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의 흔적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소유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자가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의 주인이요 그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무의미했습니다. 이 고백은 에베소서에서도 반복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8-19).

두렵지 않은 외로움

이 최고의 선을 생각할 때, 다른 모든 상대적인 것들은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 바울은 모든 세상적인 매력들과 종교로부터 단절되기에 그 댓가가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권리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사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이를 위해서라면 파문과 위협과 결별, 모든 종류의 추방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 하나님 주시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한 다른 모든 것을 잃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얻고자 함이라’는 말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제서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은 한이 없습니다(엡 3:8). 그리스도와 점점 더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일생 동안 계속되는 일이며,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체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골 2:2).

마지막 심판대를 생각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을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를 버릴 것이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는 지금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생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베후 3:14). 오직 예수께서만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만드십니다. 오직 그의 피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십니다. 바울은 율법에 기초한 ‘행위’의 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믿음’의 의에 대조시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는 결코 사람의 열심과 행위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 수하여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오는 의입니다.

믿음은 빈손을 내미는 것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순히 믿는다는 사실 이상인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합당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새로운 종류의 또 다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사기 위한 어떤 수고와 행위가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종류의 선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 그리고 사랑을 받기 위해 단순히 빈손을 내미는 것을 말합니다.

유일한 존재 이유

바울은 또한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할려 하여 그의 죽으심에 본받아”(10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개인적이고 체면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자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엡 5:17).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경종하여 여길 때, 우리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냉담해집니다. 그리고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해 방인, ‘하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엡 4:19). 그리스도와 의의 체형적인 교제는 그의 구속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죽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 그의 신하심과 자비가 마음을 압도하여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존재 이유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

영원한 이익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이익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 분은 어디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입니까, 그리스도 밖입니까?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인, 세상적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무슨 손해를 무엇입니까, 영원한 자유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 무엇을 잃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교제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음을 통과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도록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진실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사람이 만일 이 천하의 모든 재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에 매우 짧고 기회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시는 축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교제하는 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손해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할 때, 시시한 불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시기 바랍니다. ■

세계 선교

선교정탐요원론을 다녔아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오 경 진(청년부 교사)

지난 7월 7-10일 충청기도원과 경기도 이천지역에서 선교정탐훈련을 가졌다. 17명의 단기선교 지원자와 함께 보낸 이룬과 실기를 겸비한 매우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미전도종족집단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회성종, 사회구조, 사회역학을 연구했으며, 정보 수집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배운 후 이천지역으로 실습을 나갔다. 이천 지역, 도지사 시장, 현대전자공장, 도서관, 마을교회, 교회, 학교, 면사무소, 농촌 등을 찾아가며 그 지역의 특성을 조사하고와 열심히 돌아다녔다. 이천지역은 쌀, 도자기, 온천으로 유명하다. 그리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자부심이 강하며 복음화는 80% 정도 이루어졌으나 교인수가 적으며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이 떨어지고 리더십이 약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현대교회와 도시화, 구식과 신식적 절충한 현인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밤새는 줄 모르고 토론도 하였다.

이러한 정탐, 연구, 분석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하나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역연구나 정탐에 대한 모델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가나안 정복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이다.

가나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열두할 점은 이 연구가 영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나안에 정탐을 나간 10명의 정탐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와는 다른 견해로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선교정탐훈련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파제 앞에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다. 또한 이 일이 영적인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견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수단 단기선교 소식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다

박 태 양(선교전도사)

지난 6월 28일 새벽(현지시간) 수단 카르툼에 도착한 단기선교단원(약 10명)은 현지에서 3명은 김영태 선교사와 도와 새벽기도회를 비롯한 모든 사역에 참석하였고 박태양 전도사는 대학생 성경공부 인도, 현지인 연합교회 예배 설교, 누에르교회 예배 설교 등을 하였다.

이곳에서 김영태 선교사를 도와 협력하는 사역자들은 대부분 한 두 가지의 병을 지니고 있다. 폐결핵, 간염, 영양실조, 피부병으로 급한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지만 비용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마침 선교단원 중에 간호사 경험이 있는 신진현 자매가 병원진료와 치료를 효과적으로 돕고 있다.

수단에서 생활한 지 벌써 2주가 지났다. 그 동안 수돗물이 끊긴 적이 열 번, 전기가 끊긴 적이 수십 번이었는데 특히 지난 금, 토, 주일에는 연속으로 전기가 중단되어 들어오지 않아 압축 속에서 밤도 못재우고 켜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땅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지냈다. 수단에서의 생활은 조금 파장해서 하루

하루 생존하는 것부터가 투쟁이라고는 여겨진다. 하루에 서너번씩은 집안을 닦아도 항상 모래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방안에 거미줄 수도 없이 짙아 붙어 있어 하고 완전한 흠뻑(수소불로)을 몸 씻어야 하는 일은 사람을 정말 지치게 한다. 그러나 이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선교사역을 멈출 수는 없다.

오늘 새벽 4시 30분(현지시간)에 메라오의 방/까마리 전도팀이 현지로 출발했다.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강기열 선교사와 김범진 형제, 신진현 자매, 그리고 현지인 두 명이 동행했다. 트럭을 개조한 버스를 타고 사하라사막을 13시간 동안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고생스럽고도 보람있는 선교여행이 될 것이다. 그곳 난민촌을 가가호호 방문하고 수동발진기를 돌려 예수 영화를 상영하고 마을 전도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의 환상은 우리를 충분히 지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그리고 함께 기도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되 법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신명한 예배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1부예배는 잠에서 덜 깨서 졸고, 2부예배는 주차서기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졸고, 3부예배는 많은 사람들 틈에서 몸을 숨길 수 없으니 졸고, 4부예배는 시큰둥으로 졸고, 찬양예배는 하루종일 땀만 분나서 피곤해서 졸고 ... 예배가 적당한 회의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이 모였겠으나,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다 부끄러운 변명들에 지나지 않는다. 맑

더 나은 예배를 위하여

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1. 먼저 예배의 의미에 대하여 거듭 생각해야 한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2. 토요일 저녁을 잘 준비해야 한다.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오락을 일삼으면서 주일 예배시간만 되면 왜 그렇게 졸릴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3. 잘 졸면 경우에는 예배시간 전에 커피를 한 잔 하는 것도 괜찮다. 어떤 성도는 집에서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오기도 한다.

4. 예배 중에 불만을 품고 불리고, 전해질 말씀의 성경본문을 미리 읽고, 주보에 실린 설교 본문을 미리 자세히 읽으면서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미리 파악하면 훨씬 더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5. 찬송을 부르면서 조는 사람의 거의 없다. 주로 졸음은 기도시간이나 설교시간에 틀린다. 따라서 기도시간에는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하고, 설교시간에는 설교내용을 노트에 적으면서 들으면 훨씬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6.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의지적으로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면접실)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

김 경 철(새벽, 11교구)

별빛도 유난히 반짝이는 7월 한여름 토요일밤. 나는 이 밤에도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지난 삼십년이란 세월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주일 예배에 대하여 큰 감격도 없었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며 주일을 보내왔었다. 나는 아내의 강제로 저버리고 동료의 사설들의 교배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로 여겼기에, 나의 신앙생활 방식대로 예배만 드리고 나면 마치 주일 성수를 했다는 자아와의 타협적인 의식으로 끝표를 하기 가곤 하였다. 그러나 나의 이런 모습 위에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늘 눈물겨운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아내(김선봉 목사님)가 있었다.

그런데 97년말부터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내,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의 생활을 보는 영적 시야가 열리지면서 현재의 영적 모순에 위기를 느끼게 되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영의 사를 모은 공적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심령 깊이에 뜨겁게 느껴져 주일 수 없었다. 예수님은 주일 성수에 대한 간소한 권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토요일이면 주님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을 비롯하여 기도와 헌금과 신령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게 하신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 토요일 파곤하지 않도록 하며 TV시청도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아내는 집안일도 미리 다해 놓는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고귀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만 일이 있어도 어찌 다 말할 표현할 수 있겠나! 주일 아침이면 나는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기도하던 아내와 함께 차 속에서 지난주 설교와 찬양을 들으며 교회를 향한다. 또 제일 좋아하는 찬송 543장을 부르며 정말 기가 차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남바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 뵈시기기를 원한다. 말할 수 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11교구 마을전도회 회장과 남성구역장으로 봉사하게 하셨다. 또 사모부와 의료전도부에서 교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하다. 부족하지만 주도의 축복을 충실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내가 앞자리에 앉는 이유

박 영 란(청년부)

"앞자리에 앉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뒷자리에 앉으면 예배를 못해 된다." 예배에 대해 강의하시며 어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은혜는 앞자리에 떨어진다'는 말에 '자리가 무슨 상관있을까, 마음이 중요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었지만 드림과 보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었다.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림'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우선 앞자리에 앉기 위해 GBS 후 서둘러 나왔고 예배 시작 전까지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내 죄를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하고 죄 사함의 확신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감사해 하였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끼며 예배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순서순서에 참여하며 나를 드리기 원했고 예배가 온전히 모든 합당하게 드러지길 기도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가 큰 것보다 더 큰 반응을 보이주셨다. 이것이 단번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작은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기쁨에 찬 마음으로 내 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준비를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평소 준비해 오라는 생각이 들었기. 그래서 헌금집회도 많은 감사의 기도를 하며 준비하고 드림과 헌금과 기도와 기도생활로 참 교회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아직 목사님이다. 마땅히 드림 영적 예배를 위하여!

꿈지기가 바리본 고등부

조 제 민(고등부 부지도)

지난해 12월 고등부 말씀 목상을 새롭게 시작하고 난 후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97년부터 목상하고 모았던 QT책자들을 학생들의 생활과 생각거름으로 편집해서 주살로 내기 시작했었습니다. 예배소, 대성당에서 전서, 느헤미야, 디도서, 오바다를 목상했고 요한복음을 1장부터 사무엘상을 12장부터 목상하기 시작해서 이번 달이면 요한복음과 사무엘상을 마칠 것입니다. 많이 재출할 때는 100여명, 적을 때는 30여명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말씀 목상을 함께하고 있고, 학생들이 제출한 말씀 목상 용지는 가끔씩적인 자체히 읽어보고, 짧은 메모를 남기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꾸준히 참가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 고맙게 여겨집니다. 학생들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려고 적은 모습에서나마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읽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배워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분별하여 내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찬양으로 기도라 혹은 사랑의 관계로 아이들의 삶이 변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한다고 믿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읽고 목상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자 합니다. 학교 공부하느라 바쁜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는 태도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우리 꿈꾸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성장하여 대학을 가건, 군대를 가건, 목장을 가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아로 목상하는 복있는 사람들에게 준비되어져야 하니까요. 하여간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의 강증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고등부를 꿈꿉니다.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사실

박 소 해(고등부)

나는 늘 변화 무쌍했다. 감각의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사랑을 고백하는가 하면 식이비린 마음으로 방황도 많았다. 주님 기도하마 했던 일기장과 그동안 QT했던 기록들을 찾아 보았다.

내 모습은 늘 안타까울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다. 주님, 그분만이 변함이 없으셨다. 내게서 드러낼 수 있는 오직 하나는 주님이 날 볼드시며 날 버리시 않고요! 당신의 사랑을 묵묵히 보여 주셨다는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했고 그분의 손길은 동일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한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어린아이고 같이 어린 것을 찾고 단단한 신실함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버지적인 말씀을 통해, 그렇지만 아버지적인 말씀을 통해, 천장을 통해 아침의 QT를 통해 내게 끊임없는



공명을 주신다. 내 잔이 넘치고도 남을 정도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활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삶의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을 잊고 싶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 주님이 요즈음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사랑'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라 고 사랑이 부족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날마다 그분의 사랑이 새롭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대를 기다린다.

소혜의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소혜의 겸손을 아시고 그 겸손을 볼드시며 환한 날에 도움을 주시는 언제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기에 그분을 찬양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만날 시간들을 준비한다.

95년도 수련회를 추억하며...

윤 태 영(대학부 6학년)

95년 여름수련회는 경남 일대를 돌며 전도여행을 했던 아주 뜻깊은 수련회였다. 이 수련회의 전도여행 셋째날, 부산지역에서 팀별 동방 전도를 하게 되었다. 교회 비서가 시내 곳곳을 돌면서 한팀씩 내려 주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비서가 다시 오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 팀이 내린 곳은 아주 삭막한 곳이었다. 우리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전도할 사람을 찾아 떠났다. 나와 짝을 이룬 사람은 4학년 누나였다. 그 당시 나는 2학년이었다. 우리 둘은 전도할 사람을 찾아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녔다. 그러나 기운이 35도나 되는 낮시간이라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나: 누나!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군요.

누나: 음! 전도 방법을 바꿔야겠다.

나: 어떻게?

누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지. 우리 가가 호호 뿔뿔해서 전도를 하자.

이리하여 우리는 한 집 한 집 방문해서 전도를 하였다. 그러나 곧 우리에게 시련이 닥쳤다. 우리가 연립주택을 들어갈 때, 집까지 수위아저씨가 뛰어나왔다.

수위아저씨: 어디 가요?

나: 네! 저희는 이 연립주택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수위아저씨: 왜와와와와와.

너무 빨리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은 분명 실속을 올리는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엄청난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래서 아저씨에게 한 마디 하려고 앞을 눈서는 데 4학년 누나가 먼저 그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누나: 아저씨, '사랑'에 대해서 아세요?

수위아저씨: 뭐라고?

나: 그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다. 난 무척 놀랐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 같은 그 아저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을텐데 그 누나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전도를 했다. 아

적도 누나가 웃으면서 전도하는 모습과 수위아저씨의 빙글한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세월이 흘러 난 대학부 6학년이다. 그해부터

과연 내게 그때의 누나처럼 선배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회개하며 이 글을 쓴다.

99년도 수련회 참 좋았다!

김 선(대학부 2학년)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GBS 공부 내용,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학생이 목사님 설교가 전체적으로 들어오거나 성경 말씀만 경의 내용이 들어오는 적은 없었다. 이것은 어렸을 적부터 빠졌던 회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그 기간을 되돌아 봤을 때, 사람들의 즐겁던 교제법에 떠오르지 않았었다. 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꼭 필요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제복들을 웅덩방을 수 있었고 비전에 대한 생각들도 기도 중에 정립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생긴 말씀도 기억난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고난이 따르지만 천국에 있어 있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나의 삶에서 복음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사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거부당했을 때 발을 상처도 두리었다. 그래서 나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고, 나만의 이름에 걸려있었다. 하지만 내 나 그 모든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

는 것도 깨달았다. 마지막에 있었던 캠퍼스 전도도 생각난다. 전날 은혜를 받았지만 막상 나가자니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신에게 계속 접근하고 나는 왜만 믿어 있었는지. 하지만 결과는 'No'였다. 마지막으로 두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나왔는데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어설픈 말만 듣고 애상의로 'OK'가 나왔다. 두 학생은 친구 불교와 천주교 신자였다. 천주교를 믿는 학생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몰고온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되는 질문에 대해 답할 만큼 아는 것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면서 너무 뿌듯하게 기뻐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지금 내 기분은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늘 저녁 내게 받은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단감들 자야겠다.

선교 훈련 위해
인도로 떠나며
이젠 재가
그분을 증거할
차례입니다!

김 세 령(대학부 1학년)

"...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마 10:27-33).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세우실 때, 위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도 예수님 말씀 따라 그분의 사랑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요, 나의 스승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제게 행하신 일들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은 어두움의 그늘 안에 있던 저를 구원의 밝은 빛 가운데로 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분은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고 제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젠 재가 그분을 증거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도로 보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수많은 종족과 우상들로 가득 차, 작은 지구라고 불리우는 인도에 저를 보내 주시니 순종하며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향한 어떠한 계획도 거지고 싶지 않. 나를 통해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강할 때면 하나님이 두들겨치고 일어나 기대가 되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계획은, DTC를 선교사로 보내기 위한 영어훈련, 그리고 선교사님 자격을 확보는 일, 인도 교회에서 주일마다 바울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결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 줄을 압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는 죽으니 남보다 죽는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제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리된 말씀을 들고 나가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교회교육 시리즈 3

교회교육과 시공간의 문제 1

1. 문제제기
2. 신학의 문제
3. 교회교육과 시공간의 문제
4. 교회교육과 신앙교육
5.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 신앙교육을 염려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 있다가 일주일에 단 한 번 한 시간 조금 넘게 가르치는 것으로 과연 신앙 교육이 되었어요?" 정말로 맞는 이야기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시간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 자가 벌써 10년도 넘었다는 것이다. 지난 십수년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 그러면, 과연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1. 시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잡아라 한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는 그 시간은 '수령' 시간이다. 주어진 시간이 짧다고 불평하거라. 교사가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주중에 틈나는 대로 안부를 묻고 상담을 하는 전화시간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편지를 쓰고 문제있는 학생들은 직접 찾아서 시간을 주는 시간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이미 격지 않는 교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교사들의 학생들은 확연히 다르다. 학생들의 마음을 교회에 있게 하고 예수님께 있게 하는 것은 대체로 학생들을 위한 교사의 시간 투자를 비례한다. 학생들을 사랑하는가? 더 많은 시간을 내라!

2.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낸다. 따라서 학부모와 교사와의 영적인 연대감이 없이는 아이들의 신앙을 잘 세우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교회에서 과연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교사와 꾸준한 공동체를 해야 하고, 또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부모와 동역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신앙훈련을 위하여 시간을 내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과외와 학원과 여행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과중한 시간을 무사하면서 신앙 훈련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는 한, 자녀의 성숙한 신앙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녀의 신앙을 키우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라.

3.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기 학생의 학교 담임선생님이 예수님을 믿는 본진지의 여부를 필수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의 신앙에 대하여 학교 담임선생님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담임선생님이 불신자인 경우에는 학교에 교사 신우회와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신우회와 연결하여 학생을 보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지되는 일이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 우리들 '최소한 다한 수고의 마음'이 기어 올라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이 부끄러워 없으면 이 정도의 수고는 능히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수고의 맘을 흘릴 때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편집)

사랑의 주님

고 복희(세주복부)



97년 2월 12일 수요일 밤, 크리스마스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 한 모듬 외지에 앉아 눈물로 젖어 세 배를 드린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교회로 세 발걸음을 재촉하신 그것이 주님께서 없었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시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벌써 2년이 흐른 지금, 저를 생각하며 작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지 내선 생각, 나쁜 생각 행동들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변해가는 나 자신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대신 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큰 용이인 아버지께로 소망을 가지고 쫓아갈 내 주님을 찾았을 때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살아 가면서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나 세상 속에 근신 걱정이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소망을 잊을 때도 많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마음은 편지 않았지만 그때 그때마다 바로 회개해 하시며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깨닫고 알게 하시니 '성령님의 은유하시며 섬세하신' 손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의 무지함과 어둠 속에서 진정한 삶을 깨닫지 못한 이 죄인을 하 나님의 크나큰 따뜻한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죄인이 과거의 잘못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것이 바로 주님 은혜의 시작임을 느끼고
매김합니다.

저만날 모든 잘못은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안고 굳건한 믿음
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 하루를 주님 앞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
둘씩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순리라는 삶을 살 수 있
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그 날까지 동물을 항상 준비하며
개시
주신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 '누가' 현실화되는 연장
“안녕하세요?”
“어, 교회 오라고?”

정 완 환(집사, 6교구)

6교구 농어촌전도 사역지는 용인시 포곡면 둔전리 세초말교회. 그곳은 농촌도 아니요 주택가도 아니요 공장 밀집지대도 아닌 번두리에 위치한 50여 평 남작한 허름하고 오래된 교회다. 전 교인이 20명 미만이라는 어느 낯선 사람의 말이다.

우리는 1주에 2명씩 10개조로 편성되어 마을 곳곳에 배치되었다.

하루 전 28일에 도착한 침실(한방)의 시골 장승인 마을회관에 짐을 맡기거나 부엌, 솥등을 하는 한자가 볼을 가득 채우고 있다. '침은 내가 놓을지' 낮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까? 하시며 시술하시는 침실(한방)의 입가에 있는 찬송과 기도서 풀이치 않는다. 이미용 팀의 능수 능란한 손놀림과 미적 색채에 동네 부들은 '참 잘났다' 하며 재를 기다렸다. 커피와 파마를 할 때면 어김없이 나오노만 '예수님! 찬양 가세요' "이제 교회 나오실 거요?"라며 자연스럽게 손을 거둘 못하고 '네' 대답하는 모습이 거칠 거칠었다.

10시에 나갔던 전도팀이 12시가 넘자 한 팀, 두 팀 모으는데도 사기충천하여 나갔던 용사들이 부가나 불꽃과 축 처진 어깨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잊도라니 안타깝게도 곤한 수고를 했다. 집은 비어 있고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현의 전도팀은 여기에 골치아팠다. 길가에 연연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전 전자는 목사님의 기도과 전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중비밀법에 힘을 얻어 오후 전도에 임하는 용사들! 수은



주가 32, 33도까지 오르게 하는 피약별 전도대원들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전도의 불을 더욱 지켰다.는 타나루 밑에 앉아 계시는 이르신네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자 "어! 교회 오라고?" "오늘 6번이나 다녀갔어"라며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어디 아파트에 있으면 침 맞으러 오세요. 이 발하실 때 되겠네요. 이발해 드릴게요" 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 나오도록 권하였다.

저녁 집회에 과연 몇 분이나 참석할까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녁 7시 집회에 시작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하여 꼭 채우고 보조의자가 지 동원하는 감동에 힘써서 이종대 목사님의 '하나님과 화목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의 확신이 뚜렷했다. 22명의 태산자를 중심으로 다과회를 가지며 8명이 결심하였을 때 그곳 성도들이 감격의 눈시울을 흘리는 모습은 참으로 성스러워 보였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이곳으로 던져라 하시며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 감사의 합성이 교회에 가득했다.

밤 10시 버스에 오를 때 그곳 목사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써보았지만 모두 실패하였는데 1-2달 후 다시 한번 오우어 이 불꽃이 더욱 지펴지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과 기도를 뒤로 하고 서울로 향했다.



농어촌 전도를 다녀와서
기쁨으로 감동한 하나님의 사역

정 완 환(집사, 6교구)

6월 21-24일 나는 우도로 농어촌 전도를 다녀왔다. 우도는 경남 통영에서 32로 12시간 정도 들어가는 거리인데 배가 구에 총 42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대부분이 노인일이고 7명의 아이들이 있었으며 기독교인은 6명 정도밖에 없었다.

6월 21일 밤 8시에 출발하여 다음날 오전 10시에 우도에 도착하였다. 짐을 내리자마자 집집마다 방문하여 저녁에 있을 부흥집회와 다과회에 참석할 것을 부탁드렸다. 우리는 3일 동안 낮에는 해변정소팀, 마을봉사팀, 예배 및 화상팀(해변가) 만드는 팀으로 나누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 예수님을 직접 전하기가 했지만 특히 우리의 봉사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했기에 모두가 열심히 일했다.

매일 저녁에는 우도교회로 주민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율동도 하며 다과를 나누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주민들도 간접으로 담게 생각했고 우리들이 일하는데 간식을 주기도 하고 떠나기 전날 저녁에는 식사 초대도 해주었다. 우도를 떠나는

날 아침 배타는 데까지 10여분 걸리는 언덕길에 이르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12분이나 나와서 떠나는 우리를 배웅해주며 언덕에 오느니와 함께 그들을 우리로 향할 열려나 있을 확실히 수 있었다.

특별한 준비없이 시간을 드리는 마음으로 여름휴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 주셨다. 서울을 떠나 전도하고 일하며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기가 했지만 참으로 멋지고 보람된 휴가로 기억되게 하셨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느끼게 하셨다. 나는 또한 많이 생겼다. 농어촌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내년 농어촌전도 사역이 기다려진다. 하나님께서는 올해에는 또 다른 모양으로 나와 함께하심을 보여 주시리라.

지체들 소식

4교구

그들을 죽음의 구렁
에서 건져주소서

그날 밤은 온 나라가
죽음과 삶의 길 위에
있었다. 예절 무렵 열
마리 긴장했을까?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준

비린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경호하 여건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양을 잡아서 문질주어 인방에 바르고 죽음이 우리 가정을 온
이에게 하소서 빌었을 것이다. 또 양고기와 내장을 구
워 먹으며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어려움 도내생활
과 고통을 알게 하는 쓴 나물을 가슴깊이 새기며 먹었
을 것이다. 이것을 먹을 때에 허리에 손을 댄고 발에 신
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며 명령하신 하
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는 유월절 그날 밤처럼 우리를 죽음의 구렁에서 건져
주소서라. 이 구원 때에 4교구에서는 지난 10월 새
가족 초청전도잔치를 열었다. 교구 전체가 돌아가며 금
식하며 기도하고 타는 마음으로 전도했다. 장로님의 간
절한 기도와 목사님의 확인있는 말씀과 감동적인 찬양
을 하나님께 돌렸다. 교구 식구들이 이 전도를 통해 영
혼이 살려져서 다시금 나누어 줄 수 있는 예비된 자
로 겸손히 때를 기다리리라 믿는다. (김경문 통신원)

14교구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22-24일에는 농어촌전도대가 경기도 원천 새마을교
회로 사역을 위해 떠났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연한 상태였지만 대원들은 특별교육
을 받고 지난 7월부터 기도했고 모이면서 성령님의 도
우심을 믿고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부흥
회, 마을 전체에 전도를 하게 되는데 계획에 따라 잘 지
러지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
고 사람을 사로 나누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질 수 있
도록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어떻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은 사랑의 나눔을 위하여 입지 않는 깨끗한 옷
을 수습하여 가져갑니다. 위하여 많은 기도의 부락을
드립니다.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게 하
소서. (이애나 통신원)

영아부

귀한 우리 아기들을 여름성경학교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믿
음과 지혜로 양육하기 위하여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을 닮자"라는 주제로 7월 19-20일 오전 9시 30분-12시
에 신교관 103호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귀한 우리 아기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 품 안에서 기
우시지 않으시렵니까? 얼마, 이별들께서 기도와 믿음
으로 참여하시어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예수
님의 믿음, 사랑, 사랑이 지혜로운 우리 아기들에게 전
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아름다운 천국잔치 성경학교에 초대합니다

유아부는 7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여름성경학교를
열립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닮자"라는 주제로 예
수님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 성경이요기, 만물이, 맛있는 간식, 인형극, 멋진
선물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친구들이 없다면 너무나 쓸쓸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많이 보내 주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함께 오세요. 다들 여름에 맘 풀어서 준비한 천국잔
치에 어머니들의 큰 호응 부탁드립니다. (임미숙 통신원)

유지부

1, 2학기 은혜 속에 끝마쳐

지난 주일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1, 2학기 공과과정은 은혜 속에 마치고 되었습니다. 유
치부 어린이들은 그간 전지창조로 시작하여 아담과 하
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주부터는 3, 4학기 공과 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7월 19일-20일 양일간에 걸쳐 여름성경학교가 있
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성경
과 야와놀이, 찬양 배우기 등으로 재미있게 진행될 예
정입니다. 춘천교회에 나오는 6-7세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수현 통신원)

중등2부

수련회 위한 사전 훈련 실시

여름수련회 때 장애인시설을 방문하게 됨에 따라 모
다 나온 수련회를 위한 다각적인 사전 훈련을 실시하
고 있다. 그 한 예로 예마다부 박인기 강도사님을 초청
하여 설교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는 계
기로 삼았다. 예매 후에는 신생님들의 코믹 단막극을
통해 수련회 참석을 독려했다. 또한 분반공부시간에
는 3주 연속 각 시설별로 모여 합동 공과공부를 하고
그곳 특성에 따른 지속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손은경 통신원)

중등3부

여름수련회로 오세요

7월 21일부터 3일간, 춘천기도원에서 여름수련회가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을 알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그 안에서 새로
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명하
라"는 주제로 모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했으면 좋
겠어요. 그리고 수련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온
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돌리는 기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송미경 통신원)

장년3부

목은 땅을 기경하는
성도가 되자

지난 8, 9일 양일간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통해 성령 충만한 가운
대 사모하는 영혼을 만
족케 하시며 주된 영혼

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부모보다 더
하고 솜씨보다도 더 달고 지혜를 주시는 말씀으로
시간사 주님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고 나태했던 우리
들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어져 목은
심령들이 기경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회원들은 기도와 말씀, 교제와 전도를 힘써 실천함으로
성숙하고 균형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 나갈 것
을 다짐했다. 이종석 장로님의 특강을 통해 선을 행하
기 기쁨으로 주는 일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베타엔돌
린이 생산되어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올해에는 특별 순서가 있었는데 60대들은 생각지도 못
했던 조별 토의시간을 갖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간직한 믿음과 사랑의 결실을 맺
을 수 있었고 실제 우리 신앙생활을 솔직히 포개볼 수
있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달란트 조별 발표 시간에는
모두가 한한 웃음꽃을 활짝 피우면서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는 수련회는 아슬아슬 끝이 났다. 그러나 이
제부터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남은 날들을 더욱 우
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다짐하며 모
두는 차에 올랐다. (임미숙 통신원)

소망부

믿음을 확증하자

지난 8-9일 양일간
여름수련회를 가졌습
니다. '믿음을 확증하
자'라는 주제로 이종대
목사님과 김진식 목사
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
해 주었고 총 543명의 학생과 7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
하여 말씀을 배우고 찬양과 장기자랑 등 교제를 나누
며 우리에게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쉰이
신 하나님께서는 지도목사님과 교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셔서 장마 중에도 적절한 날씨를 베풀어 주셨
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성령님께서는 집회 시작 한

나·를·바·꾼·한·마·디

"아직도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윤정심(대학부)
고등학교 2학년때 나는 그 당시 바나 섬기는 교회
고등부에서 한 선생님을 만났다. 그 선생님께 조금도
붙잡은 외모 때문에 내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그분을
무시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그분과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었고, 나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
다. 나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분은 그때부터 나에게 자
신감을 주시고, 많은 편지를 보내 주셨으며, 나를 위
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이 항상 나에게 하신
말씀은 "너의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힘이 나고, 또 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꾸 나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너를 생각나게 하신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그분은 나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때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
을 때에는 나를 위해 한 주에 한번씩 나를 위해 금식
을 해 주셨다. 그리고 나는 대학교에 올라갔다. 입시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은 나는 부양하기 시작했
다. 교회도 가지 싫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집에서 그
선생님을 만났다. "아직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 내가 너무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의욕하기도 했다.

또 몇 년이 지나서 출몰이 왔다. 인생의 변화가 적
혀 있었는데, 용서를 들어보니 그 선생님이였다. 그
분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리
고 또 하시는 말씀은 "아직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
다"였다. 대학교 4학년때 청결강이 왔다. 그 선생님이
결혼하시는 것이다. 그 선생님은 결혼하시고 미국 하
와로 선교순례를 받으러 가신다는 것이다. 그 후 또
유심된다라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다. "오늘은 기도를
하는데 유난히 더 생각이 많이 나더구나! 아직도 너
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두시간 전부터 모여서서 어린이와 같은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어른들께 시간시간 충만
한 은혜로 돌려 주시고 모든 일로로부터 건 감사와 찬
양의 고백을 받으셨습다. 행사때마다 빛도 많이 따
올 수하시다는 봉사부 교사들의 할말을 속에도 소
금 치듯 고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할렐루야! (문하숙 통신원)

사망부

여름성경학교 은혜 중 마쳐

16-17일 춘천기도원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름성경학교를 가졌다. 이번
성경학교는 여러 면에서 성숙했다. 항상 교회에서 치렀
던 성경학교를 이번에는 기도원에서 1박 2일로 진행했
다.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마를 축복에서 연극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인 '체할수없는'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었
다. (정재학 통신원)

예마다부

하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훈련받은 수련회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16-17일
박인기 강도사님의 인도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연휴로 즐기는 날이었지만 준비된
천국 시민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부합할 왕이요 제사장
으로서 자신을 갈고 닦는 기회가 되는 날이었다. 특별
히 이번 수련회에는 예마다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예
마다부에서 말씀으로 자라나 교육전도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농아인 유성철 전도사님이 '영성훈련'
이라는 이름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도함으로써 첫 강간
을 펼친 것이 뜻깊었다. 또한 김진식 목사님이 열정적
발을 위한 특강을 하여 은혜를 더하였다. (배병호 통신원)

